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기술 및 진로성숙도 수준

- 시설보호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립기술 수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인식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 모두 전반적으로 높음.
-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T점수 분포는 보통 이상 수준이 90% 내외로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인식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남.
- 시설보호청소년들은 사회복지사(6.8%), 교사(6.5%), 엔지니어(6.5%) 등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적성에 관해 주로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75.5%)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됨.
- 시설보호청소년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주 |

이 글은 '변숙영 외(2021),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2021) : 시설보호청소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 재정리함.

| 각주 |

1) '시설보호청소년'은 아동양육 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하는 만 15세부터 퇴소 후 연장보호 시설(자립지원관)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만 24세까지를 의미함.

| 각주 |

2)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 시설 및 연장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가리킴.

|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시설보호청소년¹⁾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이 시급하고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시설보호청소년의 효과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 및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주요 진로 희망, 진로탐색준비행동 특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 관련 인식 조사(2021)』 및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취업 지원 요구 조사(2021)』

- 분석 대상: 만 15~24세 시설보호청소년 355명과 아동양육시설 및 연장보호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²⁾ 111명 (조사기간: 2021.6.1. - 6.15.)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시설보호청소년			자립지원전담요원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167	47.0	성별	남성	36	32.4		
	여성	188	53.0		여성	75	67.6		
재학 중인 학교 (기관)	특성화고등학교	152	42.8	재직 중인 아동복지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93	83.8		
	일반고등학교	111	31.3		기타	18	16.2		
	대학·전문대학	63	17.7			자립 지원 전담 업무 수행경력	3년 미만	46	41.4
	취업·취업 준비	19	5.4				3년 이상	65	58.6
	기타	10	2.8				전체	111	100.0
연령	19세 이하	266	74.9						
	20세 이상	89	25.1						
	전체	355	100.0						



각주

- 3) '자립기술'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필요한 기술로, 다음의 여섯 가지 기술로 구성됨.
- ① 일상생활 기술: 의식주 관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
- ② 자기보호 기술: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
- ③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지역 사회의 자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 ④ 돈 관리 기술: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
- ⑤ 사회적 기술: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
- ⑥ 진로탐색: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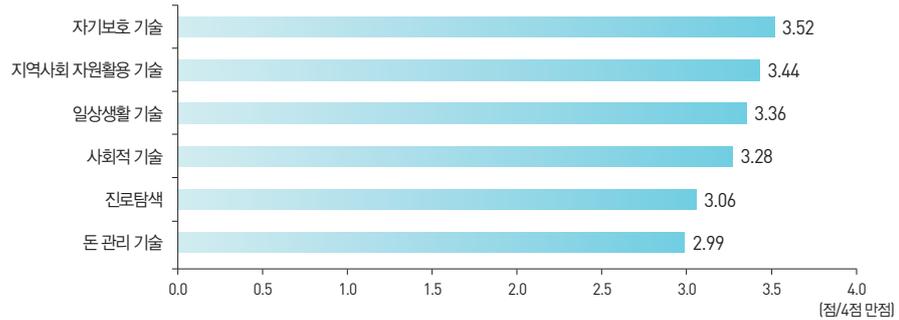
주

응답 범위는 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임.

02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

시설보호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립기술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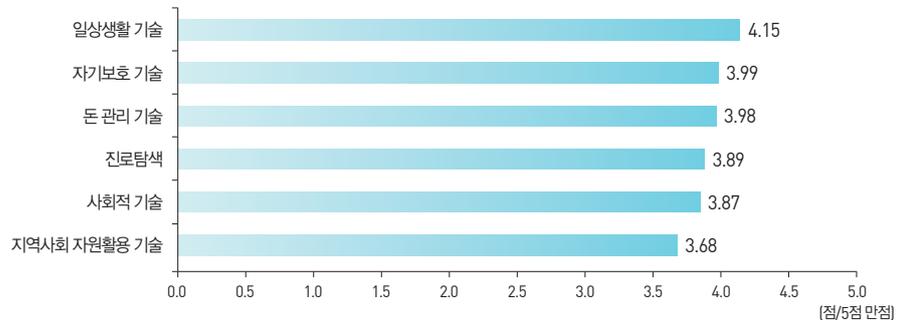
- 시설보호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립기술 수준³⁾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 자립기술 중 '자기보호 기술(3.52점)'의 수준이 가장 높고,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3.44점)'이 두 번째로 높음.
 -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자립기술은 '돈 관리 기술(2.99점)'이고, 그 다음은 '진로탐색(3.06점)'임.



[그림 1]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하는 자립기술 수준

자립지원전담요원 역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기술 중 '일상생활 기술(4.15점)', '자기보호 기술(3.99점)', '돈 관리 기술(3.98점)' 등의 순으로 높게 인식함.



[그림 2]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인식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

주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낮다)~5점(매우 높다)임.

03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 진로 희망 · 진로탐색준비행동 특성

시설보호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진로성숙도⁴⁾ 수준은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진로태도의 경우 직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정도인 '직업태도'가 평균 4.20점으로 가장 높고, 진로결정에 있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인 '독립성(4.15점)', 미래사회의 직업 및 진로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인 '진로낙관성(4.01점)',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정해보고 직업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인 '계획성(3.79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진로능력의 경우 '자기이해 능력'은 4.13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4.01점, '정보탐색 능력'은 3.98점이며,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은 Likert식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4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임.
- 진로행동 측면에서 진로탐색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12가지 진로탐색준비행동 중 평균 6.44개를 수행함.

각주

- 4)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이 진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태도, 능력, 행동을 갖춘 정도를 의미함.

주

- 1) 태도와 능력(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제외)의 응답 범위는 1점 [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임.
- 2)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의 응답 범위는 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임.
- 3) 행동은 12개 진로탐색준비행동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 1,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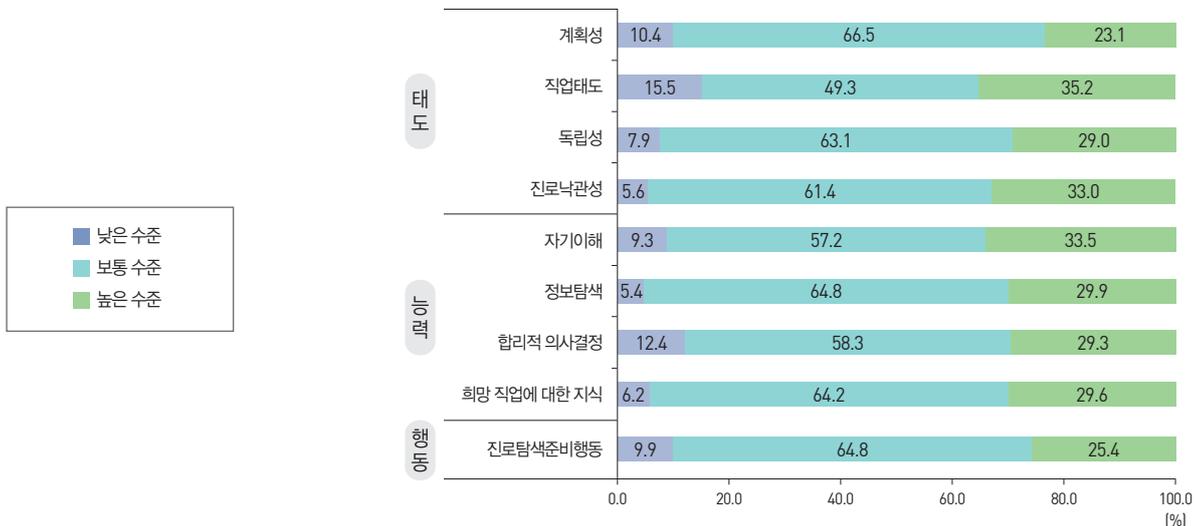
〈표 2〉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성숙도

(단위: 점/5점 만점, 점/4점 만점, 개)

구분		평균	구분		평균
태도	직업태도	4.20	능력	자기이해 능력	4.13
	독립성	4.15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4.01
	진로낙관성	4.01		정보탐색능력	3.98
	계획성	3.79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3.14
			행동	진로탐색준비행동	6.44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T점수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진로성숙도 세부 요인 중 낮은 수준을 보이는 시설보호청소년 비율은 '직업태도'가 1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합리적 의사결정(12.4%)'과 '계획성(10.4%)' 순으로 나타남.
- 직업태도의 경우 수준이 높은 시설보호청소년 비율(35.2%)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33.5%)'와 '진로낙관성(33.0%)'도 높은 수준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갖추고 있으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T점수 분포

한편,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인식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임.
- 진로태도 측면에서는 '직업태도'가 평균 2.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획성(2.77점)', '독립성(2.75점)', '진로낙관성(2.66점)'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로능력의 경우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2.77점)', '자기이해 능력(2.75점)', '정보탐색 능력(2.73점)',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2.72점)'의 순으로 높게 인식함.
- 진로행동 측면에서 진로탐색준비행동은 평균 2.68점 수준임.

〈표 3〉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인식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평균	구분		평균
태도	직업태도	2.83	능력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2.77
	계획성	2.77		자기이해 능력	2.75
	독립성	2.75		정보탐색 능력	2.73
	진로낙관성	2.66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2.72
			행동	진로탐색준비행동	2.68

주

-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낮다)-5점(매우 높다)임.

| 시설보호청소년은 사회복지사, 교사, 엔지니어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보호청소년의 주요 진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이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희망하는 진로가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 희망은 '사회복지사'가 6.8%로 가장 많으며, '교사' 및 '엔지니어'는 각각 6.5%, '경찰/군인' 5.9%, '미용사/메이크업·네일아티스트' 5.6%의 순으로 많음.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 중심으로 진로포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시설보호청소년의 주요 진로 희망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사회복지사	6.8	운동선수/지도자	3.4	건축가/ 인테리어디자이너	2.3	의사/약사	0.8
교사	6.5	변리사	3.4	반려동물 관련직	1.7	정치인	0.6
엔지니어	6.5	가수/보컬트레이너/작곡가	3.4	상담가	1.7	회계사	0.6
경찰/군인	5.9	사업가/자영업	3.1	소방/구급	1.7	무용/안무	0.6
미용사/메이크업· 네일아티스트	5.6	디자이너 (패션/산업/그래픽)	2.8	영상 제작/편집	1.1	호텔리어	0.6
간호사/ 간호조무사	4.8	프로그래머/ 정보보안	2.5	금융관련직	0.8	기타	9.3
회사원/사무원	4.8	공무원	2.3	작가	0.8	없음/모름	8.5
요리사/제빵사	4.2	물리치료사	2.3	만화가	0.8	합계	100.0

| 주 |
개방형 문항으로 설문함.

| 시설보호청소년이 진로·적성 관련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은 자립지원전담요원임.

- 시설보호청소년들이 진로·적성 관련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은 '시설 선생님(75.5%)'이었으며, '학교 선생님(67.0%)', '친구나 선배(6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타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한 진로탐색준비행동 중 시설보호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행동은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탐색(83.1%)'이었고, 가장 적게 경험한 행동은 '직업 체험(31.8%)'인 것으로 확인됨.

〈표 5〉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탐색준비행동 특성

(단위: %)

진로탐색준비행동		비율	진로준비행동	비율
진로·적성 관련 대화	시설 선생님	75.5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탐색	83.1
	학교 선생님	67.0	진로적성검사	71.0
	친구나 선배	66.5	관심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 탐색	68.7
	상담전문가	25.6	진로 설계	56.3
	학원 선생님	18.0	관심 있는 진로(진학 또는 직업)와 관련된 기관 방문	38.6
			직업체험	31.8

04 시사점

- 시설보호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진로성숙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보호자로서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시각과 시설보호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시설보호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관해 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이며,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탐색준비행동은 구체적인 직업체험보다 진로정보 탐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보호청소년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보호청소년 대상의 진로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원활한 진로 개발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나 진로지도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변 속 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 지 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